

2011학년도 제 3차 등록금심의위원회

일 시 : 2011년 1월 26일(수) 오전 9시 30분

장 소 : 선관회의실

제 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

1. 일 시: 2011년 1월 26일(수), 9:30~11:00

2. 장 소: 선관 회의실

3. 참석위원(5명)

오 수 근 위원장	기 회 처 장
신 경 식 위 원	재 무 처 장
차 미 경 위 원	학 생 처 장
서 미 옥 위 원	예 산 과 장
정 창 모 위 원	삼덕회계법인이사

불참위원(3명)

류 이 슬 위 원	학부 총학생 회장
김 지 영 위 원	학부 총학생 부회장
이 혜 경 위 원	대학원 학생 대표

4. 안 건: 2011학년도 등록금산정을 관한 심의 건

5. 회의내용

- 오수근 위원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(이하 ‘등심위’라 한다.) 총 위원 8명 중 과반수인 5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함.
- 오수근 위원장은 3차 회의시 논의하기로 한 일반대학원 및 전문.특수 등록금과 이번 학년도 새롭게 개편되는 약대등록금에 대한 논의를 안건으로 상정함

- 신경식위원이 학교 전체 등록금 인상 근거에 대하여 설명하고, 일반대학원을 비롯하여 전문.특수대학원의 특수성 및 2010학년도 등록금 현황 등에 대해 설명을 함.
- 등록금 인상요인은 약 7%이상 발생되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회적 여건을 감안하여 일반대학원은 학부와 동일하게 신입생만 2.5% 인상하고, 전문.특수대학원은 신입생,재학생 모두 2.5% 인상하며, 법학전문대학원은 인가신청시 3년간의 재정계획에 따라 3.4%의 인상을을 적용하는 안을 제시함.
- 오수근위원은 특수.전문대학원의 등록금인상이 대학원 지원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
- 신경식위원은 학부나 일반대학원은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여건에 의해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며, 특수.전문대학원의 경우 최소한 물가 상승을 만큼은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2.5%의 인상을을 적용하는 것이며, 인상률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지원율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함.
- 서미옥위원이 기존의 4년제 약대와 새로 개편된 약대의 현황과 등록금에 관하여 설명하고 새로 개편된 약대의 등록금이 기존약대 등록금에 비해 인상되어야 함을 설명함.
- 정창모위원이 새로 개편된 약대의 등록금에 대하여 추가되는 원가요인을 고려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함.
- 서미옥위원은 새로 개편되는 약대의 경우 기존의 약대에 비해 전공개설 과목수가 129학점에서 175학점으로 많아졌으며, 4학년인 경우 한 학년 모두 실무실습을 해야하기 때문에 인건비 및 실습비용이 추가로 발생하

여 약 60만원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함.

- 신경식위원이 기존의 약대 등록금에 비해 발생하는 교육원가 추가 비용과 교육비 차이도를 고려하여 2011학년도 새로 개편된 약대등록금은 교육비 차이도 1.49를 적용하여 책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.
- 새로 개편된 약대등록금을 교육비차이도 1.49를 적용하여 책정하는 안에 대하여 모든 위원들이 동의함
- 오수근위원은 2011학년도 일반대학원 등록금은 학부와 동일하게 재학생 동결, 신입생 2.5%인상하는 것으로 하고, 전문.특수대학원은 신입생,재학생 2.5% 인상, 법학전문대학원은 3.4% 인상하며, 새로 개편된 약대등록금은 교육비차이도 1.49를 적용하여 책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고 모든 위원들이 이에 동의함.
- 오수근위원장은 이로써 2011학년도 등록금 심의를 모두 종결함을 선언하고 11시에 폐회함.

2011년 1월 26일

오 수 근 위 원 장
장

신 경 식 위 원
신경식

차 미 경 위 원 차이경

서 미 옥 위 원 서이옥

정 창 도 위 원 정창도